

‘고팡 바다’ 명성은 간 데 없고

[제주잠녀] 103.<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4)제주시 귀일리어촌계

등록 : 2008년 01월 28일 (월) 17:07:24
최종수정 : 2008년 01월 28일 (월) 17:07:24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물건이 많았을 때는 아무리 '매서운 추위'라도 바다의 품을 파고드는 잠녀를 내치지 못했다. 설새없이 바다를 때치는 거친 바다 탓도 있지만 불턱 같은 잠녀탈의실에 모여든 잠녀들 중 누구하나 선뜻 고무뿔을 집어들지 못한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바다에서 벌어 자식들 대학공부까지 시켰다고 하지만 지금은 "죽도 못 쓸 정도"라는 푸념이 앞선다. 그도 잠시, "밖에서 뭇을 갈아입는 천한 일이라고 홀대만 하지 않아도 그게 어디냐"며 아직 세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반의 시선에 안타까움을 던졌다.

작지만 알찼던 '고팡'바다...미수동

가문동 바다의 헛물꾼(직접 물에서 작업을 하는 잠녀)는 12명선. 이중 50대 3명과 60대 5명이 주축을 이룬다. 조금에서 여섯물까지 3일만 작업을 한다.

바다가 남긴 태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지난해 나리 이전 만해도 한번 물에 들면 많게는 50kg까지 작업을 했다. 태풍 후 17~18kg 작업도 힘겹다. 상군 소리를 듣는다는 서수인씨(54)는 "물이야 눈에 보이니까 이런 저런 보상도 해주고 복구작업도 했지 바다는 도통 관심을 안 가져준다"며 "전복대신 골프공을 건져 올릴 정도지만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해주는 건 너무하다"고 목소리에 잔뜩 힘이 들어간다.

고팡 바다로 불렸던 옛 명성은 사라졌지만 바다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큼은 더하면 더했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이제 90대를 앞둔 김춘옥 할머니(87)가 작업 중 꼭 들렸다는 바위에는 '순이 어멍 **여'라는 웃음이 절로 나는 이름이 붙여졌다.

양식장으로 사용하는 서홀바당에 전복종패 1만미를 뿌렸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복이 많이 나는 여라며 '좁돌' 등 바다 지명을 귀찮게해주면서도 빈 겹데기만 보인다고 푸념이다.

서홀바당 양식장은 한달에 한 두번 공동작업을 해 똑같이 나눈다.



귀일리 어촌계당

#하나지만 둘인 바다...가문동

'귀일어촌계'는 미수동과 가문동, 두 개의 바다를 관리하고 있다. 바로 옆이라고 하지만 두 바다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게 색깔이 다른 바다지만 행정 기관 등에서 같은 바다로 친다. 두 바다를 한 사업으로 꾸려야하는 만큼 고민도 많다. 사업 지원은 한 어촌계로 받고 나눠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결국 돌아오는 것도 반으로 나뉜다.

그러다보니 자율관리사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준비나 관리에 손이 가는 것도 일이지만 지선으로 나눠 관리하는 현실에서 특정한 바다를 골라 집중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수동에 비해 사정이 좀 낫다는 가문동에서는 요즘 18~19명의 잠녀가 바다에 든다. 40대가 1명 있다고는 하지만 이중 7명 정도가 70대다.

매월을 관내에서 소라 TAC물량(7000kg)이 가장 많다는 귀일어촌계지만 도 전체와 비교하면 그다지 큰 물량이 아니다.

그래도 소라 전복종패를 뿌린 안(양)콩코지에서는 제법 수확량이 좋다. 미수동과의 경계인 너북바당을 지나면 바로 양식장이다. 콩코지와 큰물도·작은물도·할미여까지 다정다감한 이름도 비슷하다.

나리 이후 여며 군돌 등에 물 쓰레기가 쌓이면서 적잖은 마음고생도 했다.

미수동과 달리 가문동에는 수익사업으로 올해 8년째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부터 임대 형태로 운영을 했지만 지금은 유지관리비로 오히려 적자가 난다.

30년넘게 어촌계 일을 해온 김용기 어촌계장은 “바다가 변해도 많이 변했다”며 “변한 것에 맞춰, 바다 성격에 맞춰 지원이 이뤄진다면야 좋겠지만 현실은 안 그렇다”고 아쉬워했다.

귀일어촌계 탈의장 등에는 ‘어촌계장 선거’와 관련한 공고가 곳곳에 붙여져 있었다. 잠녀들은 하나같이 ‘아버지’같은 김 어촌계장이 다시 일을 해주길 바랐다. 바다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바다같다. 별다른 보수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김 어촌계장의 불편한 한 쪽 팔 대신 잠녀들은 무한한 관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동귀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